



제목	Warriors of the Steppe: A Military History of Central Asia, 500 B.C. to 1700 A. D.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Da Capo Press
발행일	2001. 11. 8.
저자	Erik Hildinger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272
ISBN 또는 ISSN	978-0306810657

**내용 요약**

실크로드 선상의 중앙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목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책은 이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중 스텝지역의 유목전사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목민의 관습과 삶, 그들의 필수품인 말(馬)과 활, 스키타이부터 만주족까지 다양한 이 지역의 유목민족들을 소개하고 있다. 스텝지역의 대표적인 유목민인 스키타이는 양·염소·소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목축(移動牧畜)을 영위하고, 가축의 감독과 교통·군사상의 필요에서 말을 기마용으로 활용하였다. 스키타이는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문화를 비롯한 고대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고전문화를 흡수·융화해 고유의 유목기마민족 문화를 창출한 다음, 그것을 동방에 전함으로써 고대 동서 교류의 한 장을 열었다. 다음으로 훈족은 중앙아시아의 스텝지역에 거주하였던 투르크계의 유목기마민족으로서 4세기에는 유럽으로 이동하여 375년 흑해 북안의 동고트족을 정복하여 그 대부분을 지배하여 두고, 이어서 다뉴브강 하류의 서고트족을 압박하여 게르만 민족 대이동의 발단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 외에 6세기 카스피해와 흑해 연안의 초원지대에 등장한 아바르, 11세기 중반부터 중동 지역에 광대한 왕국을 세웠던 투르크계 민족인 셀주크, 14세기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티무르, 맘루크, 타타르 등의 유목민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